



해외 동향

□ 에어버스, 'ADEX 2019' 서 최신 항공기 공개

- 에어버스, 'ADEX2019*' 전시부스에 A350-1000공폭동체기와 A400M 차세대 군용 수송기, 전천후 지구 관측 가능 영상 레이더 위성인 TerraSAR-X, VSR700 전술 무인기 시스템 모형을 전시
 - * ADEX2019 : 10.15.~10.20.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'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'
- 에어버스는 KAI와 함께 수리온 다목적 헬기사업, 소형민수헬기(LCH)사업, 소형무장헬기(LAH)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중

□ 우버 헬리콥터, 일반인에 개방... '요금 24만원부터'

- 우버, 존 F.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헬리콥터 우버 서비스 개방
- 이용 경로는 존 F.케네디 국제공항-맨하튼 하부 헬리패드까지 약 8분정도의 비행
- 우버, 2023년 항공 택시사업 계획 중이며, 헬리콥터 서비스로 향후 경량 전기항공기 사업의 기반데이터를 수집할 예정



국내 동향

□ F-35A, 국군의날 기념식서 일반에 처음 공개

- 공군 전략무기로 운용될 美 스텔스 전투기 F-35A,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
- F-35A, 지난 3월말 3대 한국에 처음 도착 이후 연말까지 13대 도입예정
- 2021년까지 총 40대 전력화 될 예정(총 7조4천억 원 예산 투입)
- 현재 훈련단계에 있는 F-35A, 연말 실전 배치 전망

□ 한화에어로, 美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(EDAC) 인수 완료

-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美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*을 약3억달러(3570억 원)에 인수 완료

*이닥(EDAC) : 항공기 엔진 부품에 탑재되는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(IBR)와 케이스 생산 기업

직원 590여 명, 지난해 매출액 1억 5천만 달러. 美 P&W(프랫&윙트너)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

-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원 투자할 계획



도내 동향

□ 도내항공기업들, 중국서 7250만 달러 수출 상담

- 경남테크노파크(경남TP), 코트라(KOTRA)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에서 ‘2019 한-중 항공 파트너링’ 개최
- 경남지역 10개 항공기업 참가(관내 기업 하이즈항공, 씨앤리, 켄코아 등), 총37건, 7250만 달러(한화 870억 원) 수출상담 성과 달성
- 중국 측 행사 참가사 대부분은 보잉, 에어버스의 1차 공급사이자 동시에 COMAC(중국상용항공기유한공사)을 중심으로 한 자국 완제기 기업의 1차 공급사들로, 국내 항공부품 기업들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항공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짐

□ 진주시,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착수...2021년 발사계획

- 진주시, 관·학·연 공동 참여 초소형위성개발 사업 추진
-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경상대, 경남과학기술대가 협력하여 2021년까지 141억 원 규모 예산 투입, 2U*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 개발하여 그 중 1기 발사한다는 내용

*1U : 가로·세로·높이 각 10cm 정육면체크기



관내 동향

□ KAI*, 창사20주년 “미래 100년 준비” 결의

- 안현호 사장,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주 정체로 인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수주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
 - KF-X 개발사업은 9월 26일 상세설계(CDR)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제 1호기 부품 제작 진행 중
 - 2인용 상용 유인헬기를 개조해 무인화한 수직이착륙무인헬기 NI-600VT 초도비행 성공.
 - 자회사 KAEMS, 美 연방항공청(FAA)로부터 B737 항공기 정비능력 인증 획득.
- * KAI, 지난 1999년 국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우중공업, 삼성항공,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설립

□ 제2관문공항 남중권(사천) 유치 총력

- 영호남 8개 사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, 전남 순천에서 ‘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제2관문 공항 남중권 유치 세미나’ 개최
-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동서통합형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, 제2관문공항의 남중권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입지로 사천공항 선정 논의
- 사천은 부산을 비롯한 울산, 경북, 호남, 대전과 충청 등 영호남을 아울러 남부권의 항공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, 남부내륙철도나 KTX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여 영호남 1700만 국민이 이용 가능
- 김해공항 확장에 2조~3조 원 이상의 인프라비용이 드는 반면, 관문공항의 사천건설은 공사비 50%의 절감효과 뿐 아니라 지역감정 유발을 차단시키는 의미가 있음
- 남중권 공항입지 적정성 학술용역으로, 현재 사천공항 확장하는 방안(1안)과 서포면에 신공항 만드는 안(2안) 2가지 구상 제시(서포 신공항 건설 방안 적극 추진)
- 사천의 국제공항 유치는 항공MRO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해외 정비물량 수주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

작성일	2019. 10. 8.(화)	보고일	2019. 10. 8.(화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 (055-831-3470)